

<표 4> 연령대별 접속기기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명)

	18~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이동전화	62	52	43	37
인터넷	51	46	40	34
텔레비전	33	40	48	58
유선전화	25	34	43	60
e-Mail	37	39	35	33
응답자 수	311	616	456	310

3. 결 어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접속의 속성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소통의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향후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1] “Mobile Access to Data and Information” 2008-3-5
(http://www.pewinternet.org/PPF/r/244/report_display.asp)
- [2] “Seeding The Cloud: What Mobile Access Means for Usage Patterns and Online Content”, 2008-3-5
(http://www.pewinternet.org/PPF/r/245/report_display.asp)

FCC, Liberty Media와 News Corp.간의 지분맞교환, 조건부 승인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원 이민석
(T. 570-4093, optimum@kisdi.re.kr)

1. 개 요

FCC는 지난 2월 News Corp.과 Liberty Media Corp.(Liberty Media)간 지분교환협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Liberty Media는 자신이 보유한 16.3%

에 이르는 News Corp. 지분을 News Corp.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의 대가로 News Corp.으로부터 DirecTV의 지분(지분율: 40.36%)과 지역스포츠네트워크 3개사 지분(지분율: 100%), 그리고 현금 5억5천만 달러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Liberty Media는 온라인 상거래를 비롯, 비디오, 미디어, 통신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해 있고 위 협정을 통해 DBS(Direct Broadcasting Service)서비스를 제공하는 DirecTV의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채널사업자가 다채널유료방송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직 및 수평영향심사에서는 Liberty Media와 직접적 지분관계는 없으나 경영자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문제되어, PAR 수준의 승인조건이 제시되었음에 흥미로운 심결이다. 주지하다시피 FCC 심결은 경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다양성 또는 지역성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공익성을 심사한다. 이하에서는 이 중 수직 및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에 초점을 두고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2. 주요 쟁점 및 승인조건

가. 시장획정

FCC는 *News Corp.-Hughes*¹⁾ 심결과 동일하게 여러 채널을 티어(tier)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래밍 배급(MVPD) 시장과 프로그램(채널)이 거래되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확정하였다. MVPD 시장획정의 경우 가장 넓게는 (기술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MVPD가 동일시장으로 묶이는 확정이 가능할 수 있고 케이스에 따라 시장이 더 좁게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²⁾ 또한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장은 프로그램의 주제, 장르(character) 등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어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세부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심결에서는 전국 케이블 방송채널과 스포츠채널이 아닌 지역케이블 채널(national and non-sports regional cable programming networks) 시장, 지역 스포츠 채널(regional sports network), 지역 TV 방송국(채널)의 세 시장을 확정하였다.

지리적 시장구분 여부는, MVPD 시장의 경우 서비스 가격상승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지역적으로 시장을 구분하였다.

1) FCC,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FCC MOAO), (2004), MB Docket No. 03-124, [available at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03-330A1.pdf].

2) FCC,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2008, MB Docket No. 07-18, ¶ 31.

그러나 이전 심결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분석 시, 사업자 선택의 폭이 동일한 소비자들은 (설령, 면허권역 또는 행정구역상 지역이 다를지라도) 지역적으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장의 경우 프로그램 사업자(채널 사업자)의 면허권역이 지리적 시장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전국 면허를 가진 채널은 전국 시장으로, 특정 지역 면허만 가진 사업자(예를 들어, 지역 스포츠 중계채널)는 지역 시장으로 확정한다.

나. 수직 및 수평 경쟁저해성 심사

위원회는 지분 맞교환 협정으로 인해 수평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Puerto Rico의 MVPD 시장을 식별하였다. Puerto Rico에서 MVP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DirecTV-Puerto Rico와 LCPR, 그리고 Echo Star이다. 지분교환협정으로 인해 Liberty Media는 DIRECTV의 사업부인 DirecTV-Puerto Rico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LCPR은 Liberty Global의 자회사이나 Liberty Global은 Liberty Media와 별개로 독립된 회사이다. 그런데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Liberty Media의 회장인 John Malone이 Liberty Global의 Executive Committee의 두 위원 중 한명으로 사실상 두 회사의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DirecTV-Puerto Rico와 LCPR간의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였다.³⁾ 위원회는 위 판단을 위해 양사가 그동안 서로의 주된 라이벌 관계였는지를 확인하였고, 특히 그동안 양사의 가입자에게 상대방의 서비스가 주된 대체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양사가 경쟁관계에서 협조관계로 놓일 경우 또 다른 경쟁사인 Echo Star가 양사의 가격상승 또는 품질저하 유인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경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판단하였다. 위원회의 결론은 두 회사가 Puerto Rico 지역에서 서로의 주된 경쟁업체였고 Echo Star의 경쟁압력 또한 현 상태에서는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Liberty Media 측은 Puerto Rico 지역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John Malone 회장의 배제 또는 해당 지역에 한정된 특별 이사회 구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John Malone 회장이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의견이 기각되었다. 결국, 위원회는 승인 조건으로 1년 이내에 DirecTV-Puerto Rico와 LCPR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매각하거나 그에 상응한 행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John Malone 회장은 Liberty Media 및 Liberty Global 전체 지분의 약 5%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30%의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양사는 3명(회장제외)의 이사를 같은 인물로 두고 있다.

4) 점유율 등, 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직적 경쟁 위해성에 관해서는 비디오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DirecTV와 수직결합된 Liberty Media의 차별, 배타적거래 등의 반경쟁적 행위의 유인을 심사하였다. 먼저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장의 세부시장으로 획정된 전국 케이블 채널 및 스포츠 채널이 아닌 지역케이블 채널의 경우, 사실상 Liberty Media가 PAR 규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성케이블 프로그래밍 또는 위성프로그래밍의 배타적 거래가 금지되어 큰 이슈가 없었다. 그런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Discovery 채널에 대한 추가 규제 문제였다. 특히 위원회는 Liberty Media가 Discovery 채널의 모회사인 Discovery Holdings에 대한 지분관계가 전혀 없지만, John Malone 회장이 약 31.08%에 이르는 투표권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Discovery 채널 또한 Advance/Newhouse와 수직관계에 있어 PAR 규정에 놓인다. 위원회가 우려한 사항은 지분관계 변화에 따라 Discovery 채널이 PAR 규정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도 John Malone의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Liberty Media와 수직적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Discovery 채널 관련 지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PAR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표 1〉 Liberty Media-News Corp. 주요 쟁점 요약

관련시장	지위, 지분 점유율 변화	주요 이슈 및 평가	승인조건
Puerto Rico의 MVPD 시장	n.a.	John Malone 회장의 이해관계에 의한 DirecTV-Puerto Rico와 LCPR간의 경쟁 저하	1년 이내에 DirecTV-Puerto Rico와 LCPR간 이해관계에 놓인 모든 지분 매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전국 케이블 프로그램 및 비스포츠 지역 케이블 프로그램	n.a.	John Malone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Discovery 채널에 대한 추가 규제 (특히 지분관계변동으로 인해 PAR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해당 상황 발생 시 PAR에 준하는 의무 부과
지역 스포츠 케이블 프로그램	3개 지역 스포츠 채널의 100% 지분 이전	수직관계에 의한 단기적 프로그램 공급 거절 등 봉쇄	Liberty Media의 향후 6년간 계약 유지
지역 TV 방송 프로그램	-	지상파 재송신 동의 등 이전 계약의 승계	자발적 이전 계약 유지 및 승계

지역스포츠채널시장의 경우 지난번 News Corp.-Hughes 심결과 동일하게 Liberty Media

가 단기적으로 전략적 봉쇄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역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의 MVPD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즉, “must have”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지난 심결 및 기록들로 판단하건대) 단기적으로 경쟁(및 잠재적 경쟁) MVPD 사업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전략적 봉쇄 유인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Liberty Media는 지역스포츠채널과 관련한 계약을 6년간 유지기로 하였고, 현재 News Corp.에서 양도된 채널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이 포함되는 채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고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위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지역TV방송국 시장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계약 승계 문제가 이슈였으나 Liberty Media가 자발적으로 기계약된 사항을 향후 6년간 유지기로 함에 따라 문제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1] 김희수 외,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KISDI 연구보고 07-08, 2007. 12
- [2] FCC,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FCC MOAO). (2004). MB Docket No. 03-124.
- [3] FCC,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2008, MB Docket No. 07-18.

미디어융합시대 베텔스만(Bertelsmann AG)의 사업현황 분석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윤지원
(T. 570-4311, jwyune@kisdi.re.kr)

1. 개 요

베텔스만(Bertelsmann AG)은 복합미디어 기업으로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디즈니 등과 함께 세계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1835년 독일에서 출판·인쇄업으로 출발,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한 베텔스만은 텔레비전, 라디오, 출판, 잡지·신문, 음반, 인쇄와 미디어서비스, 북클럽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복합미디어사업체로 구미디어와 신미디어를 아우르며 제조와 유통을 포함하는 수직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융합시대를 맞이한 유럽 기반의 미디어기업인 베텔스만의 사업을 분석하고 다른 세계적 복합미디어 기업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